

다산포럼

어느 위안부 할머니의 죽음



김정남 언론인

중군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시려 온다. 망한 나라의 그들의 존엄과 인권을 지켜 주지 못했고, 해방된 조국을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지 못했으며, 오늘의 대한민국도 그들의 한을 풀어 드리지 못하고 있다. 한을 가슴에 품은 채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며칠 앞두고(8월 9일) 일본 위안부 피해자 박유년 할머니가 미국에 있는 아들네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1922년 경남에서 태어나 일본군 간호원으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인을 따라 중국 광둥까지 가게 되었고, 광둥과 싱가포르에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다가 해방 후 고향에 돌아왔으나 집에도 머무르지 못한 채 타향을 걸돌며 험하게 생활해 왔다.

박 할머니의 별세로 2005년부터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청하던 129명의 피해자 가운데 이제 47명만이 남았다. 올해 들어서만 아홉 분이 세상을 떠났다. 남아 있는 분들도 모두가 고령이어서 언제 유명을 달리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금년은 한일협정 50주년을 맞는 해였다. 그러나 한일협정은 처음부터 잘못 짠 애진 단추였다. 한일협정을 주도한 박정희·김종필에게 제대로 된 역사의식이나 민족의 자존이 있을 리 없었고, 일본 측은 역시 제국주의의 연장선 위에 있는 정부가 주도한 결과였다.

양측 당사자의 역사 인식이 이렇다 보니,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2조에서 “1910년 8월 22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사늑약 등)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기묘한 야합문서를 만들 어낸 것이다. ‘이미’라는 표현으로 일본은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비껴갔다. 뿐만 아니라 청구권협정 제2조항에서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후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에 배상 문제 등에 이 조항을 금과옥조처럼 전면으로 내세우 고 있다.

나는 이점에 사과와 배상 문제를 분리 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사과를 받는 것

이 먼저고 급하다. 돈 문제는 언제나 사 람을 구차하게 만든다. 이미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분리해서 대응했던 경협이 있다. 그해 3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분들의 생활 대책은 정부에서 마련하 자. 그 대신 일본 측은 중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역사와 인류 앞에 일본군이 저지른 죄과를 사죄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에 접근하도록 하라”고 했다. 신문에 보도된 이러한 사실은 일본 조야(朝野)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한국 외교관들은 일본에서 한껏 어깨를 펴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나는 중군위안부 문제를 단순한 한일 간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인간의 존엄과 여성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세계 전 인류의 양심과 정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용맹 과감으로서 구오(舊惡)를 확정하고 진정된 이해와 동정에 기본 한 후호적 신국권을 타개함이 피차 간 원 화소복(禱禱互禱)하는 절경”이라는 기묘 3·1 독립선언의 정신과도 부합된다. 그 방법의 하나로 나는 평화의 소녀상

또는 기림비 건립 운동을 범세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11년 12월 4일,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10대 소녀상을 세운 뒤를 이어 지금도 전국 각지에 소녀상이 다투어 건립되고 있다. 이들 소녀상이 국내에서 역사와 인권 교육의 장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고 한편 해외에서도 소녀상과 기림비 건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한 기림비에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성노예로 강요당한 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출신의 수십만 여성과 소녀들을 추모하며”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2015년 9월 22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위안부 소녀상 건립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약 20여 명의 생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서도 중국만 위안부 소녀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와 아울러 두 번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시 여성을 성노예화 시킨 일본군의 인류사적 범죄 행위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운동을 온 세계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위안부 할머니가 더 생존해 있을 때, 일본 측의 진정 어린 사죄의 말을 그분들께 들려주 고 싶다.

정촌 특·특

이공계 청년들이여, 창업에 도전하라



김한별 광주과기원 의료시스템학과 박사과정

우리나라 청년 세명 중 한명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 ‘학자금대출’, ‘취업난’, ‘3포 세대’ 등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공계열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해도 걱정 크게 없이 잘 먹고 잘살고 있는 이들 모두 사실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큰 투자가에게 말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공계 발전과 인재 양성이라는 전략으로 매년 무수한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쏟아냈다. 단편적으로는 이공계장학금 정도 밖에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웅망한 고등 교육기관에서는 고가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큰 무

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수많은 세계 유명 과학 학술지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이 밖에 국·공립·기업연구소에서 해마다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위해 투자한 수 조원의 사회적 간접 비용은 말할 것도 없다. 이처럼 이공계열 청년들이 파바로 느끼지 못하지만, 알고 보면 모두 국가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다. 선진국들과 비교해 이공계 발전을 위한 처우가 더 나아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지난 수십 년간 개선되어 온 이공계열의 특혜는 앞으로 개선될 사소한 부분 보다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큰 사회적 비용을 만약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문계열 학생들이 역사학을 주장하더라도 이공계 학생들은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그렇다면, 이공계열에 이렇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는 과연 수익적 높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분석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나의 분석은 처참한 실패라고 본다. 이러한 나의 분석은 대다수의 이공계열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피땀 흘려 노력해 일군 ‘대기업’이라는 환경에 그저 순가

락만 얹으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이공계열 청년들은 이미 짜여 있는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부품으로 살아가며, 본인의 잠재적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성세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이공계 청년들이 그들보다 더 훌륭한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수학적으로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론적인 계산 값과 실제 결과는 다르다. 이 두자가 처참한 이유다.

‘Made in china’라고 하면 조롱받던 시대가 지났다. 중국은 어느덧, 대륙의 실수 ‘샤오미’, 드론 시장을 꼭 잡은 ‘DJI’ 등의 몇 개의 기업들만으로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게 됐다. 소수 기술 창업이 성공으로 이어져 국가의 위상까지 높인 좋은 예다. 과거 경제 부흥을 이끌던 제조업의 열세와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기술력의 부재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수년째 부침었다. ‘삼삼’은 ‘애플’을 뒤쫓기 바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쥐어짜 처음부터 다시 달려나가기엔 이미 많이 늦었다. 바로 이때를 위

해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막대한 투자를 해온 것이다.

이제는 이공계 청년들이 나설 때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랫동안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바로 기술 창업으로 말이다. 이공계열 청년들은 과학적 지식에 반독이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성공적인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졌다. 이러한 성공은 분명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다시 한 번에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과학 인재 1명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엄청나다. 이공계열 청년이라면 오늘 밤 자기 전에 본인에게 투자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냉정하게 계산해보길 바란다. 세상이 공짜는 없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과학 인재 들은 국가에 진 빚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 상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말했듯 기술 창업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차세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삼삼’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라는 투자가의 선택이 결코 처절하게 실패한 것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기 고

피닉스(phoenix)



양흥수필가

피닉스(phoenix)는 불새로 우리나라 말로는 불사조(不死鳥)다. 히랍어 포노닉쿠스에서 온 말인데 문자 그대로의 뜻은 자홍(빨간색)이다. 애굽 신화에 나오는 새로서 불고 금빛의 날개를 가진 이 새는 아라비아 황야에서 살았다고 한다. 한번 태어나면 오백년을 산다. 깨끗하게 살다가 500년이 지나면 이 새는 거룩하게 죽는다. 직접 약초와 향내가 나는 나무를 씹어두고 날개로 불을 일으켜 그 위에서 스스로를 태운다. 그리고 그 재 속에서 다시 절고 신선한 몸으로 재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오백년을 살다가 죽고 또 그렇게 해서 살고... 아름답고 가특한 불사조의 전설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런 영생의 본능 뿐 아니라 인간에게는 식욕, 소유욕, 성욕, 명예욕 등도 본능으로 주었다. 또한 동물에게는 ‘귀소본능’, 즉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본능도 주었다.

오래 전, 연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연어의 귀소본능을 다룬 것이다. 보통 연어가 새끼로 부화되면 약 20일을 부화된 장소에 머무르다가 바다로 헤엄쳐 나간다. 태평양에서 5~6년을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 계곡이나 시냇가로 되돌아와 알을 낳고 거룩하게 죽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짧고 신선한 몸으로 재생해 또 태평양을 다녀와 알을 낳고 죽고 또 그렇게 이어져 산다.

연어는 어떻게 8000km나 떨어진 곳에서 고향을 찾아오는 것일까? 바다에는 특별히 연어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일까? 귀소본능의 발휘인가? 미국 무디 과학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연어의 후각, 즉 코에는 고향을 찾아오는 기능이 발달돼 있다고 한다. 물에는 사람이 쉽게 지분이 있는 것처럼 연어 특성이 있다. 학자들이 의하면 연어가 알에서

부화된 곳의 물방울을 백만 배로 희석시켜 실험을 했는데 그 어떤 물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연어가 고향의 물을 코에 부으니 뇌파의 동작이 격렬해 지더라. 그 물의 양은 국제 규격의 수영장에 한 방울을 넣은 것에 불과한데, 고향의 물맛을 감지한 연어가 귀향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다.

연어의 귀소본능은 실로 대단하다. 지느러미가 상했어도, 꼬리가 잘려나갔어도 본향으로 돌아온다. 다만, 코에 상처나 병이 생기지 않으면 말이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이런 본능을 충족시키는 대상을 만드셨고 또 주셨다. 먹고 싶을 때 음식이, 목이 마를땐 물이, 성욕에는 이성이 있으며, 명예욕을 위해서 감투라는 것도 존재한다. 귀소본능을 가진 연어를 위해서는 여 특별히 강물이 풍족히 흐르며, 기러기의 귀향 길을 위해 가을의 창공은 맑고 높게 마련됐는지도 모른다.

노스탈지야는 히랍어의 노스토스(돌아간다)와 알고스(고통)로 된 말인데, 이것은 인간이 고향 그리워 않는 ‘사향병’이다. 이 병 때문에 인간은 고향에 갈 수 없

는 고통을 발달시켰는지 모른다. 배가 달는 저곳에 고향이 있고 비행기 뜨고 내리는 곳에 내가 난 곳이 있고, 내가 자란 마을 앞에 고속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흐릿한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인간 영혼의 갈망인 영원불사(永遠不死)에 대한 대상이 마련돼 있지 않을 수 없다. 사람에게도 연어와 같은 본능이 있다. 영원한 고향 창조자를 향한 본능이다. 창조자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 길을 걷게 하신다. 다만, 이 본성이 이상이 생긴다면 마치 코가 땅까지 연어처럼 이 세상에서 방향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길잡이로서의 종교가 없을 수 없다. 자신을 불사르고 또 사후의 세계가 없을 수 없다.

불사조는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었다. 그것은 인생 찬가다. 인고의 사막에서 선언적이 피는 날을 기다리며 뇌성과 새들의 소리를 모아 합창하는 날들로 오백년을 채우고 죽고 또 부활하는 불사조는 인간의 꿈이다. 비와 바람과 고독과 맹수와 병과 죽음 같은 것을 결코 원망하지 아니한다. 오직 살고 있다는 불사조의 신앙 때문이다.

社 說

지역 공약사업 예산 반영 마지막 기회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광주·전남 주요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은 더디기만하다. 대선 당시 표심을 얻으려 내놓았던 사업이 다 보니 현재 진척은 미미하다. 그러나 정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현안 사업의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예산 일부라도 반영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역민들은 입을 모은다.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은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도 국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내년 676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정부 안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 도시 구축 사업과 광주 도심 하천 생태복원사업은 이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전남의 경우 7대 공약에 11개 사업 총사업비 6조6257억 원 중 지난해까지 2197억 원이 투입됐다. 전남도는 내년 공약 사업에 7856억 원을 요청했지만

고작 1675억 원이 배정됐을 뿐이다. 3년간 들어간 예산은 전체의 5.84%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역 현안 사업 대부분이 지지부진하자 지역민들은 대통령 임기 내에 공약 사업을 끝내겠다는 마음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게 아니냐고 의심할 지경이다. 물론 선거 때 절박한 마음에 내놓았던 대통령 공약을 모두 지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 할 것 아닌가.

마침 어제부터 19대 국회의 마지막 새해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년 현안 사업의 일부 사업이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특히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과 민주평화도시 구축사업, 중요 사회간접자본 확충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예산만큼은 정부가 꼭 챙겨 주어야 한다. 그래야 박 대통령도 약속을 지키려 애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광주 서구 ‘쓰레기 방치’ 실험 성공하기를

광주 도심 곳곳의 불법 쓰레기 투기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강한 인력과 각 동별로 2~3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에 나선다 하더라도 불법 투기자를 현장에서 적발하기엔 한계가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주 서구청이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실험에 나서는데 이해할 만하다. 그동안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 민원이 접수되면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운영해 왔지만 다음 달부터 최대 5일간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대대적인 실험이다.

이처럼 서구에서 ‘쓰레기 방치’라는 극단적인 대책을 들고 나온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좀처럼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광주 5개 자치구가 적발한 불법 쓰레기 투기 건수를 보면 서구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남구(43건)나 광산구(52건)에 비해 건수로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상습 불법 쓰레기 투기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행정력 낭비 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서구는 결국 이번엔 극약 처방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놔두는 대신 그 지역에 경고 현수막과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불편을 느끼게 해 ‘연락만 하면 쓰레기를 치워 준다’는 주민 의식을 바꾸고자 하는 취지다.

과연 이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쓰레기 방치’ 혹은 ‘청소 파업’ 대책은 지난 3월 이미 부산의 한 구에서 시행된 바 있다. 결과는 잠시 뜸했던 무당 투기가 계속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다고 광주 서구의 실험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부디 성공해서 광주 시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다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감안할 때 사습 투기 지역의 담배락 그림 그리기 등 환경미화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듯싶다.

無 等 鼓

군 입대를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후배와 전주 삼남극장에서 영화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를 봤다. 두어 시간 동안 한바탕 크게 웃고 극장문을 나서며 어둠 속에서 ‘시간이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로버트 제메키스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평범한 한 고교생(마이클 J 폭스 역)이 ‘괴짜 발명가’ 브라운 박사가 만든 타임머신을 타고 우연히 30년 전으로 돌

이 영화 속 주인공이 설정한 ‘2015년 10월 21일’을 ‘백 투 더 퓨처 데이’로 명명하고 각종 마케팅과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 이날부터 1편과 2편을 합쳐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한 영화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재개봉된다. 영화가 예측한 30년 후 미래 모습이 실제 얼마나 적중했는지, 영화대로 시카고 컵스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할지 여부도 흥미롭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리는 것은 영화

백 투 더 퓨처 데이

속 얘기만이 아닌 듯싶다.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는 정부 방침 역시 과거로 돌아가는 행위가기 때문이다. 야당과 역사학계, 교육계는 함축적으로 “국정 교과서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미래 관점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흔히 ‘역사에 이프(if : 만약에...)는 없다’고들 말한다. 실제 역사를 없던 일로 뒤올 수는 없다. 정치적 의도에 의해 감추고 싶은 과거사를 미화하는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바르게 잡힐 수밖에 없다. 지나온 ‘역사’에 답이 있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